

코로나 19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여섯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경말씀: 시103:1-22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공포가 닥친 지 벌써 2년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까지 와서 오늘 예배드리게 된 것 먼저 감사
병, 직장, 사업, 교회 폐쇄, 독재자들 등장, 부정 선거, 대통령 선거 앞이 안 보인다.

이것은 전 세계 상황, 전체주의, 사회주의, 적그리스도의 세상

동성애, 낙태, 기술의 진보, 메타버스, 인간의 황폐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나도 우울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운명이다.

이런 좋지 않은 일들에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복음의 초기; 바울 포함 고난 받은 성도들

그 뒤 1500년 동안 중세 카톨릭 암흑시대: 말도 못하게 고난 받은 성도들

우리나라 1970년대까지 보릿고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때

1919년 스페인 독감, 무려 5000만 명이 이상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운 시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신구약성경을 보라,

약 6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 그분들이 모든 것이 잘되고 좋아서 믿음 생활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히11:8-10,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도시, 참고 나갔다. 이것이 믿음의 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21년 한 해를 마치게 되었다. 정말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오늘 부른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 < >,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시편 103편

오늘 103편, 다윗의 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인생의 쓴맛을 다 본 뒤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한 것으로

보임, 특징: 22절, 특별한 간구가 없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찬양

1. 개인적인 감사(1-6), 2. 과거 이스라엘의 경험(6-19), 전 우주적 차원의 감사(20-22)

핵심 메시지

1.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근거: 두려움과 순종(17-18), 고후7:1

2. 복을 받은 뒤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살전5:18).

개인적인 감사(1-6)

1절, 주를 찬송하라는 말의 bless, bless는 원래 피로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의미

이집트의 유월절 어린양 희생,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여 드리는 것
주를 찬송하라: 성도들이 주님 그분과 그분의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경배하는 것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는 것

참된 찬양과 예(경)배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무언가 요청하는 것이 없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내장, 속 중심부), 혼과 영, 지정의(막12:28-31), 특히 30절

여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됨

2절: 그분의 은택(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라.

다윗이 자기 자손들에게 주는 말,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의 주제, 기억하라(적어도 14번), 잊지 말라(적어도 9번 신32:15-18).

그런데 모세 이후 사사기를 보면 세 번째 세대에 이르러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다(삿2:7-3:7).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 동일하다. 우리 부모, 우리, 그리고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 세대
지금 이 나라와 교회의 문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가지 복, 6가지 감사 이유

다윗은 3-6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섯 가지 복을 나열한다.

용서, 치유, 구속, 사랑, 배부르게 함, 새롭게 함, 판단의 공의 집행

1.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심(3)

용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사용되는 말

불법이란 정도에서 벗어난 것, 뒤틀린 것

우리는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불법을 저지른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들의 용서, 히9:27, 죽음 다음에는 심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는 가장 큰 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12)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들의 용서가 주어진다(엡1:7),

시32, 시51에는 다윗의 용서 체험, 밧세바 사건, 32:1-2

2.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3, 마9:35). 여기의 병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 죄로 인한 질병 포함, 1차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앓았던 병에서 구출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 이것을 근거로 성도가 병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종종 아픔과 질병이 죄의 상징으로, 치유가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다.

확실한 것: 그리스도인은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죽었다(삼하12:15-23).

바울도 자기 친구 두 명을 고치지 못하였다(에바브로디도 빌2:25-30, 드로비모, 딤후4:20).

자기도 치유하지 못하였다(고후12).

신자의 몸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연약함과 질병에서 완전히 구출되지 못한다(롬8:18-23).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질병은 없다. 하나님께
말기고 기도하자.

코로나 19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3. 4절의 구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지내다가 해방된 것 의미(출12-15) 여기서 구속은 멸망의 구덩이(스트롱 7845)에 빠진 자를 빼내는 것 의미

구약 성경에서 멸망의 구덩이는 종종 죽은 자들이 가는 곳(무덤이나 지옥을 뜻한다, 욥33:18, 시
30:9)

사무엘기상하, 다윗은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많다(삼상20:3).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는 이런 시를 기록함

지금까지 지내 온 우리의 삶,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주 사고, 막내딸

4. 관을 씌운다는 말, 보석이 달린 왕관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왕이 되었으니.

그런데 그가 쓴 왕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의 왕관과는 비교될 수 없다.

보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로 우리는 영광의 관을 쓴다.

이로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통치한다(롬5:17).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엡2:1-7)

5.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신다. 육신의 생명도 잘 유지하도록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시23:2)

5절, 다른 현대 역분들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킹제임스 성경 입을 만족시켜 주신다.

여기는 입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먹을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 살아난다.

그 결과 우리는 매일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다(사40:31), 시71:17-18, 92:14 등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양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만족시켜 주신다.

6. 하나님은 압제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다윗의 경험, 자기 장인 사울의 핍박,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의롭게 승리를 줌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세상과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압, 여기까지 버티며 왔다.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6-18)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사건을 언급한다(7).

주 하나님은 그들의 구출자(6), 이스라엘 이집트 구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심(7),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분의 말씀과 대언자들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행위, 배은망덕한 행위, 모세의 시내 산 율법 수여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 40년 내내 모세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 8-12,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들(출33:12=13, 34:5-9 등)

하나님은 기록하신 분,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고 용서하신다(8-9).

그 뒤 재판관들의 시대, 동일한 일이 반복됨

다윗의 말: 당시 사람들도 그러하였다. 다윗도 그러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동일하다. 대한민국, 교회 모두 배은망덕한 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붙잡히 여기신다(11).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 수직

우리의 죄악을 옮기신다(12), 동과 서의 관계, 남북은 극점, 동과 서는 절대 닿지 않는다.

우리의 죄와 우리는 동과 서의 관계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13)

왜, 우리의 구조를 아시기 때문에(14), 우리는 흙먼지, 창2:7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 흙으로 돌아갈 존재

즉 우리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은 우리를 정죄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에도 참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받을 형벌이 다 예수님에게 주어짐(사53:4-6)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나 동점심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는 그냥 사랑이 아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신 속죄 희생 요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죄들의 용서 불가능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한다.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15), 곧 사라지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출하심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17).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18)

먼저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신 말씀,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요약: 신30:19-20

전 우주적인 찬양(19-22)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우주의 왕에게 경배한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도, 천사들도(20, 91:11)

그분은 군대들의 주(21, 창2:1). 군대들은 그분이 만든 모든 것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 상대, 그의 말(삼상17:45),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도 요한의 계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찬양 소리를 냄(계5: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우리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더 그분을 크게 찬양해야 한다.

천사는 구원 불필요, 우리는 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어라고 그분을 찬양할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런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022를 맞이하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실 줄로 믿는다.